

국제금융시장 10월 동향 및 11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심 한 용 (hyshim@kdb.co.kr)

- ◆ (환율) 10월 원/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 약진에도 한·미 무역협정 후속 합의 도출 지연 등으로 상승, 11월은 한·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
- ◆ (금리) 10월 미국과 유로존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 속에 하락하였고 일본은 상승, 11월 미국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나,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, 일본은 엔화 약세 속에 상승 전망
- ◆ (주가) 10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, 미·중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, 11월도 트럼프의 對中 관세 인하, AI 투자수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

□ 10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美 연준은 연속 기준금리 인하, 여타국은 금리 동결

- 美 연준은 FOMC(28~29일)에서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(4.00~4.25% → 3.75~4.00%)
 - 다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*에도, 최근 고용시장*의 하방 위험 등에 따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, 12.1일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하기로 결정
 - * 美 소비자물가상승률(% yoy / %) : 2.7/4.1('25.6월) → 2.7/4.2(7월) → 2.9/4.3(8월) → 3.0/미발표(9월)
 - 파월 의장은 경제전망 및 리스크에 대한 FOMC 인사들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며 12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론 고수
- 한국은행은 금통위(23일)에서 기준금리 3회 연속 동결 (2.50%)
 - 물가상승률*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 중이나, 높은 수도권 주택가격** 오름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동결 결정
 - 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yoy) : 2.1('25.4월) → 1.9(5월) → 2.2(6월) → 2.1(7월) → 1.7(8월) → 2.1(9월)
 - ** 수도권/전국 주택가격 상승률(% 전월비) : 0.36/0.16('25.7월) → 0.18/0.04(8월) → 0.24/0.08(9월)
 - 이창용 총재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킨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언급
- BOJ는 금융정책회의(29~30일)에서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단기금리 0.50%)
 - 성장률 전망치*를 상향하였으나 글로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동결하고, 우에다 총재는 향후 경제와 물가 상황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
 - * '25년/'26년 전망(% '25.7월 → 10월) : 경제성장률 0.6/0.7 → 0.7/0.7, 근원물가 상승률 2.7/1.8 → 2.7/1.8
-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(30일)에서 3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 (수신금리 2.00%)
 - 라가르드 총재는 미·중 무역협상 등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했다고 언급, 일시적인 물가상승률*의 목표치(2%) 하회해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
 - 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yoy) : 1.9('25.5월) → 2.0(6월) → 2.0(7월) → 2.0(8월) → 2.2(9월)

□ '25.11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주요 경제지표 : 연방정부의 섣다운 장기화*에 의해 고용실적을 비롯한 주요 통계 발표가 일시 중단된 상황, 섣다운 해제 후 발표될 경제지표 결과가 연준의 정책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

* '26년 예산안 및 임시예산안 관련 공화당-민주당 간 이견으로 10.1일부터 연방정부 운영 중단

- 한국, 금통위(27일) : 가계부채* 증가세가 일부 완화되었으나, 3분기 소비와 수출** 개선, 고환율과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부담으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

* 가계부채 증가액(조원, 전월비) : 0.7('25.3월) → 5.3(4월) → 5.9(5월) → 6.5(6월) → 2.3(7월) → 4.7(8월) → 1.1(9월)

** 경제성장률/민간소비증가율/수출증가율(% , 전기대비) : 0.7/0.5/4.5('25.2Q) → 1.2/1.3/1.5(3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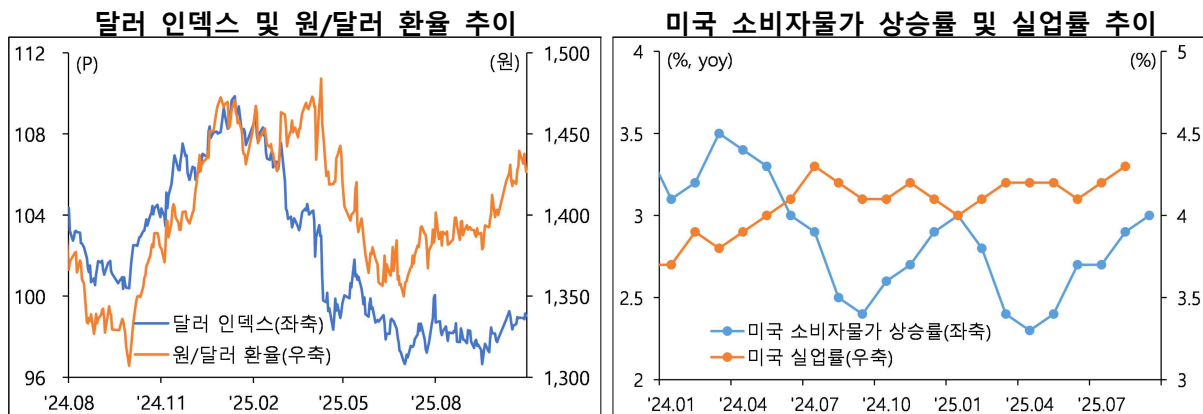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- (환율) 10월 원/달러 환율은 한·미 무역협정 후속 합의 도출 지연 등으로 상승, 11월은 한·미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
- 10월 원/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* 약진 등의 하방 요인에도 한·미 무역협정 후속 합의 도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

* 코스피지수(P, 종가) : 3,186.0('25.8.31일) → 3,424.6(9.30일) → 4,086.9(10.30일)

- 11월 원/달러 환율은 美 금리인하 기대 속에 한·미 무역협상 타결(29일)에 의한 불확실성 완화, 미·중 정상회담*(30일)에 따른 통상환경 개선 등으로 하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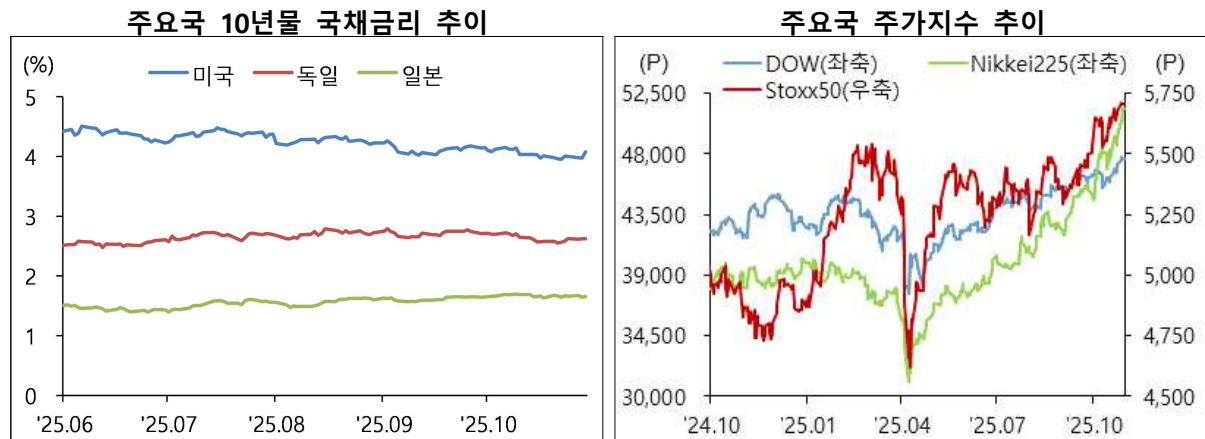
*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조치를 1년간 유예, 미국은 대중 국가별 관세를 20%에서 10%로 인하 등



	'23년말	'24년말	'25.9월말	'25.10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94.5	1,472.5	1,402.9	1,426.5	+1.7%
달러 인덱스	101.47	108.09	97.82	99.01	+1.2%

주 : '25.9월 미국 실업률은 연방정부 섣다운 지속으로 미발표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10월 미국과 유로존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하락하였으나 일본은 상승, 11월은 미국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나 일본 및 유로존은 상승 전망
 - 10월 미국과 유로존 금리는 연준의 연속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하였고, 일본은 증시 활황 등에 의한 위험자산 선호,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확장적 경제 정책*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
 - * 日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와 대규모 금융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
 - 11월 미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*로 하락, 유로존은 독일 등 역내 국가의 경기 회복 징후**로 상승, 일본은 엔화 약세*** 흐름 속에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하며 상승 예상
 - 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12월 FOMC 25bp 인하 확률은 74.8%(’25.10.31일)
 - ** 유로존/독일 종합 PMI(P, 기준치=50) : 51.0/50.5(’25.8월) → 51.2/52.0(9월) → 52.2/53.8(10월)
 - *** 월말 엔/달러 환율(엔) : 150.7(’25.7월) → 147.0(8월) → 147.8(9월) → 153.4(10월)
- (주가) 10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속 등으로 상승, 11월도 트럼프의 對中 관세 인하 결정 등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
 - 10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의 금리인하와 미·중 정상회담(30일)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, 주요 지수는 월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
 - * 역대 최고 종가(P, 일자): 다우존스 47,706.4(28일), Nikkei225 51,325.6(30일), 유로Stoxx50 5711.1(27일)
 - 11월 주요국 주가는 트럼프의 對中 국가별 관세 인하(20% → 10%), 견조한 AI* 투자수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
 - *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분야의 AI 투자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고 언급(29일)



	'23년말	'24년말	'25.9월말	'25.10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97	4.533	4.150	4.078	△1.8%
독일채 10y	1.979	2.367	2.711	2.645	△2.4%
일본채 10y	0.623	1.101	1.648	1.656	+0.5%
다우존스	37,385.97	42,573.73	46,397.89	47,632.00	+2.7%
유로 Stoxx 50	4,521.47	4,869.28	5,529.96	5,705.81	+3.2%
Nikkei 225	33,169.05	39,894.54	44,932.63	51,325.61	+14.2%

자료 : Bloomberg